



K-리그 재미있어졌네

파울 수는 줄어 들고
경기 속도 빨라지고

‘파울 수는 줄고 경기 속도는 빨라지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경기 지연에 따른 ‘재미 없는 축구’에서 탈피하고 빠른 축구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가 올 시즌 K-리그 경기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프로연맹 심판위원회는 1983년 K-리그 개막 이래 처음으로 ‘스피드업’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심판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의적인 시간 지연 행위를 최대한 줄여 경기 박진감을 높인다는 게 심판위원회 구상. 불필요한 파울로 경기가 자주 끊기는 ‘지루한 축구’에 대한 축구 팬들의 비난을 의식한 조치다.

프로연맹은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파울 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 시즌 첫 20경기에서는 전체 파울 수가 657개로 한 경기 당 평균 32.9개 나왔다. 지난 시즌 첫 20경기에서 나온 785개(평균 39.3개)보다 128개나 줄었다. 경기당 6.4개나 줄어든 셈이다.

프로연맹은 여기에 파울로 지체된 경기의 경우에는 추가 시간을 더 줬다. 앞서고 있는 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누워 업살을 피우며 시간을 끌어도 소용없

게끔 한 셈이다.

지난 시즌 한 경기에 주어진 평균 추가 시간은 전반이 1분9초, 후반 2분37초로 전체 3분46초였다. 하지만 올해 K-리그 1.2라운드, 갑대회 1라운드에서는

올 20경기 파울 657개

작년보다 128개 줄어

웬만한 몸싸움에는

휘슬 불지 않고 진행

지난 시즌 대비 평균 4분36초 증가한 8분22초(전반 2분58초·후반 5분24초)가 주어졌다. 선수들이 고의로 경기를 지연하면 할수록 추가 시간을 계속 늘리

겠다는 계산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한 경기에서 그라운드를 누빈 시간이 평균 65분인데 비해 지난 시즌 초반 K-리그 실제 경기 시간은 56분 밖에 안됐다.

심판들도 심하지 않은 파울이 나오더라도 어드밴티지를 적용, 경기를 계속 진행하거나 웬만한 몸싸움에는 휘슬을 불지 않았다. 지난 달 9일 열린 부산 아이파크-전북 현대 전 실제 경기 시간은 61분으로 측정돼 지난 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시간에 골도 자주 터졌다. 작년 전체 경기에서 인저리 타임 때 나온 득점 비율은 6.1%였지만 올해 첫 20경기에서는 10.0%로 올랐다. 추가 시간이 늘어난 만큼 득점 확률도 높아진 셈이다.

선수들의 불필요한 파울에 대한 경고 비율도 늘어 2007년에는 경기 지연과 지속적 경기규칙 위반에 따른 경고 비율이 11.3%, 1.7%에서 올해는 12.6%, 6.9%로 각각 증가했다.

프로연맹은 이밖에 선수들이 라커룸에 경기 시작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차임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 7월 아르헨과 평가전

사상 첫 메달권 진입을 노리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에 빛나는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와 평가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1일 “아르헨티나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7월 하순부터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치른 뒤 올림픽 개최지인 중국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

해 왔다”며 “한국 전지훈련 기간에 한국 올림픽대표팀과 평가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7월22일부터 8월2일까지 12일 동안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치를 예정이며 7월25일이나 8월2일에 평가전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림픽 7회 연속 진출...여자핸드볼팀 귀국
올림픽 7회 연속 진출의 성과를 이룬 여자핸드볼 대표팀 임영철 감독과 수문장 오영란 등 선수들이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베이징 올림픽 선전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징 올림픽 성화 해외 봉송 일정 돌입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밝혀줄 올림픽 성화가 1일 베이징을 떠나 해외 봉송 일정에 돌입했다.

베이징올림픽위원회(BOGOC)는 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성화를 실은 특별 전세기인 베이징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을 출발해 해외봉송 지역인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향해 19개국 21개도시를 일주하는 해외 봉송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알마티에 도착한 성화는 2일 낮 12시께 시남족 텐산산맥 자락에 자리한 메데우 경기장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봉송 행사를 시작한다.

이번 해외 봉송 도시는 서울과 평양이 포함되며 성화는 오는 4월27일 서울에서 평양으로 특별전세기 편으로 직접 봉송된다.

피스퀸컵 국제여자축구 6월 남북대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진출길목에서 남북대결을 벌였던 남자 축구에 이어 여자 대표팀도 ‘코리아더비’가 성사됐다.

국가대항전으로 치러지는 2008 피스퀸컵 국제여자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1일 수원시 이비스호텔에서 가진 조 추첨 결과, 한국은 북한과 같은 A조에 편성돼 6월14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전을 치르게 됐다.

이로써 여자 대표팀은 지난 2월24일 중국에서 2008 동아시아축구대회 풀리그 최종전에서 북한과 맞붙은 지 4달여 만에 국내서 남북대결을 벌이게 됐다.

안익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당시 동아시대회에서 0-4로 패했다.

페예노르트 이천수 2군경기 선발 출전

부상으로 재할훈련을 해 온 네덜란드 프로축구의 이천수(27·페예노르트)가 두 달 만에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이천수는 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원정경기로 열린 엑셀시오르와 2군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2군 경기지만 이천수가 공식경기를 뒀던 것은 지난 1월31일 AZ 알카르문에서 발목을

다친 뒤 두 달 만이다. 6일 열린 유틀레흐트와 정규리그 홈 경기를 1군 복귀 시점으로 잡고, 컨디션과 경기 감각을 조율하기 위한 출전으로 볼 수 있다. 이천수는 후반 35분 교체될 때까지 80분을 뛰며 1군 복귀 전망을 밝혔다.

최근 2연패를 당하며 순위가 6위(16승6무9패, 승점 54)까지 떨어진 페예노르트는 공격수 이천수의 가세에 기대를 걸고 있다. 페예노르트는 후반 19분 니키 호프스의 선제 결승골과 후반 36분 게오르기니오 비날동의 추가골로 엑셀시오르를 2-0으로 눌렀다.

광주체고 권지은 ‘태권왕’

국제고 박소연 ‘동’ 전국종별선수권 여고부

권지은(광주체고 1년)이 2008 전국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권지은은 1일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고부 예비급 결승전에서 박이진(상지여

고)을 맞아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으나 서든데스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소연(국제고 3년)은 미들급에서 이혜영(평내고)에게 0-1로 패해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으며 권급 이하리(광주체고 3년)와 라이트급 이보람(국제고 3년)은 각각 동메달을 따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2일(수)
- ▲2008 MLB(뉴욕 메츠 : 플로리다) (08 : 00·Xports)
 - ▲2008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 : 주니치)(17 : 45·SBS스포츠)
 - ▲2008 프로야구(기아 : 두산)(18 : 20·MBC ESPN·MBC ESPN), (SK : 롯데)(18 : 00·KBS N SPORTS)
 - ▲2008 프로축구 컵대회(서울 : 수원)(21 : 00·SBS스포츠)

윌리엄스 자매 8강행

테니스 소니 에릭슨오픈 女단식

‘흑진주’ 윌리엄스 자매가 테니스 마스터스 시리즈 소니 에릭슨오픈 여자단식 8강에 동반 진출했다.

세계 7위인 언니 비너스 윌리엄스(28·미국)는 1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크랜든파크에서 열린 여자단식 4회전에서 캐롤라인 보즈니아키(43위·덴마크)를 2-0으로 완파하고 8강에 올랐다. 동생 세리나(8위·27)도 카이아 카네프(61위·에스토니아)를 2-0으로 돌려세우며 8강에 합류했다.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워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두가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큐텐)
[본문]

비타민 A, C, E 및 보충
-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예방
- 눈의 건조감과 시력 개선
- 피부, 모발, 머리카락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제
- 면역력 강화, 체력 증진
- 항노화, 항암 예방
- 항산화, 항염증, 항알러지 작용
- 노년기, 노인성 질환 예방

아연의 보충
*카로틴(비타민 A) 함유량: 1000IU(100%)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KUNJIN 국제약품
http://www.kunjinfarm.co.kr

광고심의인 23-1000